

이차전지

Sector Issue Brief

2026. 7. 20

Check Point

- 11월 미 중간선거 블루웨이브 확률 76%
- 트럼프 임기내 30D 부활가능성 낮아
- 북미 BEV 성장 글로벌 대비 낮아

블루웨이브보다 BEV 성장 중요

| Analyst 정경희 | khchung@ls-sec.co.kr

블루웨이브란

이차전지와 관련 현재 시장에 블루웨이브(Blue Wave) 기대 있어. 블루웨이브란 미국 정치에서 파란색을 상징하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하는 현상을 뜻함. 마치 커다란 파도(Wave)가 해안가를 휩쓸 듯이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연이어 당선되며, 의회를 장악하는 모습을 거대한 파도에 비유한 표현. 미국 정치권과 베팅 마켓, 여론조사 기관은 11월에 열릴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전원 장악(블루웨이브)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음. 하원 탈환의 경우 가능성 90% 이상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란 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악화, 그린란드 매입 등 파격 행보에 대한 피로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추락한 데 따름. 당초 공화당이 유리한 지형이었던 상원(35석 교체)마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과 공화당 내부 갈등이 겹치며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측이 힘을 얻으며 Polymarket에서 블루웨이브 확률 76%로 나타나

11월 중간선거 '블루웨이브' 발생시 30D 부활 가능성 임기내 낮아

'11월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29년 1월) 중 IRA 30D 조기 일몰을 철회(부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이유는 미국의 헌법적 입법 절차와 권력 구조 때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면 1) 30D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음. 2)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이 됨. 자신의 핵심 치적이자 정체성인 'OBBA(친환경 세제 폐지 및 화석연료 장려)'를 뒤집는 법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듯. 3)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강제로 발의시키려면 상원과 하원 각각 3분의 2(67%) 이상의 초당적 찬성표를 얻어야 하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더라도 상·하원에서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3 초당적 슈퍼다수(Supermajority)를 확보하는 것은 미국 정치 지형상 불가능할 듯. 글로벌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공화당 행정부 하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하더라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입법 거부권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폐지되거나 축소된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혜택을 단독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음

만일 '28년 11월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여 '민주당 단독 정부(Trigecta)'를 재구성해야 함. 이후 '29년 초 세법 개정안(또는 예산조정안)에 IRA 30D 복원 조항을 포함하여 통과시키면 가능. 그러나 이 경우 다시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9년 하반기 혹은 '30년 초가 될 듯

북미 BEV 성장률 하락세, 글로벌 대비 낮은 성장률 이어져

우리는 블루웨이브가 된다 해도 실질적인 혜택이 2029년말 혹은 2030년 가능한 미국 정치 지형보다 북미 BEV 판매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 지속되는 것에 주목. HEV 약 69대를 판매해야 BEV 1대 판매에 맞먹을 만큼 BEV는 대당 배터리 소요량이 가장 큰 EV 타입. '19년부터 '25년까지 IRA에 따른 강력한 보조금 혜택이 시작된 '23년을 제외하면 북미 BEV 판매량 증가율은 글로벌 대비 평균 10% 하회. 북미 시장은 1) 국토가 매우 넓고 도시간 이동 거리가 긴 반면 2) 충전 인프라의 한계로 주행거리 불안감(Range Anxiety)이 높고, 3) 선호 차종이 대형 및 SUV·픽업트럭으로 배터리 용량과 무게 한계에 따른 가격 부담 등으로 BEV 보급률 낮은 편. IRA 30D 일몰 전인 '24년 성장률도 9%로 기타 지역 하회. 30D 부활 시점을 '29년 하반기, 30년 상반기 예상하더라도 배터리 수요에 가장 중요한 BEV 확산을 위해서는 위 애로점 해결될 필요. 셀3사 '26년 5월 기준 SK On의 북미 비중이 가장 높으나, 월별 변동성, 주요 고객사 전략 감안할 필요

그림1 예측시장인 Polymarket 블루웨이브 확률 76%로 높게 책정중



Politics - Congress

Blue wave in 202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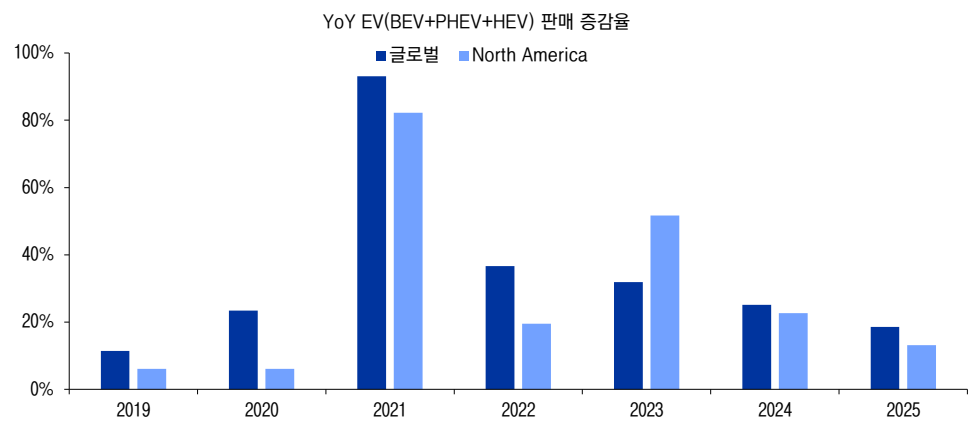
76% chance ▲ 23%

Poly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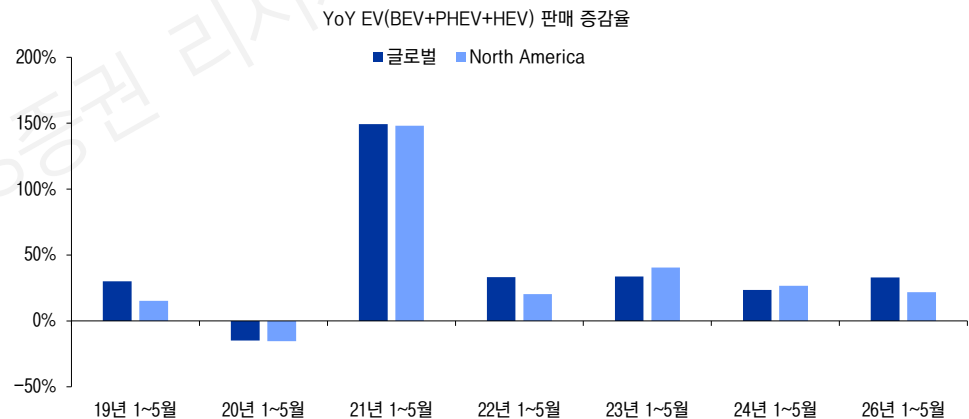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글로벌 vs 북미 전기차(BEV+PHEV+HEV) 판매 증감율: '23년 제외, 글로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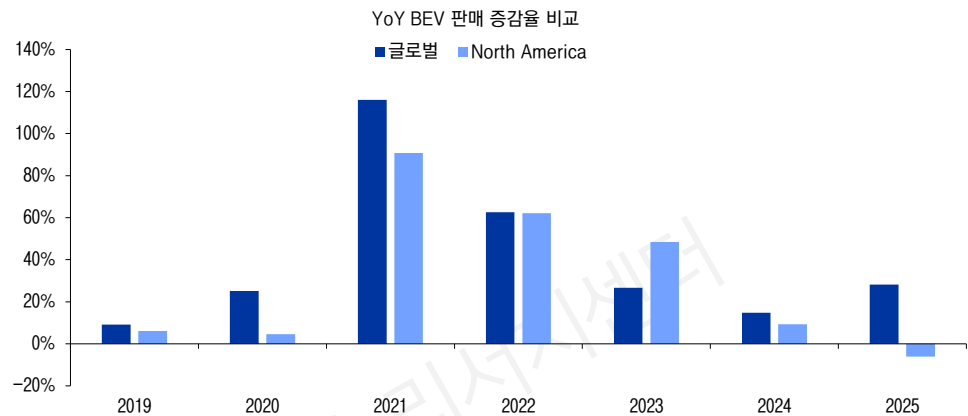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1~5월 누적 기준 '26년 IRA 영향으로 전년 및 글로벌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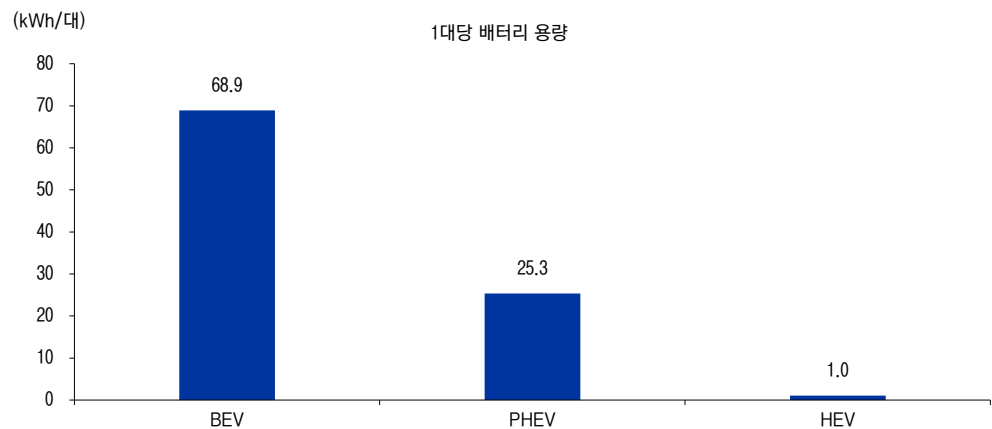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배터리에서 중요한 BEV 판매 성장률 역시 '23년 제외 글로벌 대비 북미 낮아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전기차 타입별 1대당 배터리 탑재량 비교('25년 글로벌): BEV 한대가 HEV 약 69대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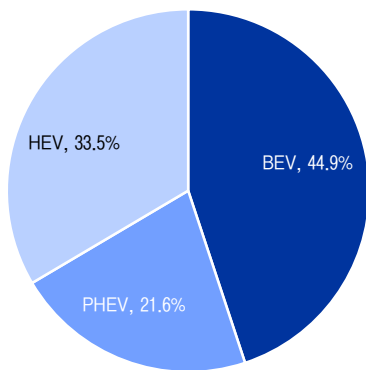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글로벌 차량 타입별 배터리 소요량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HEV	2.7	3.2	3.3	5.1	5.9	7.9	9.7	11.3
PHEV	8.4	7.1	14.5	30.3	48.8	88.4	144.0	176.9
BEV	88.7	107.6	129.6	272.4	459.7	613.0	747.2	1,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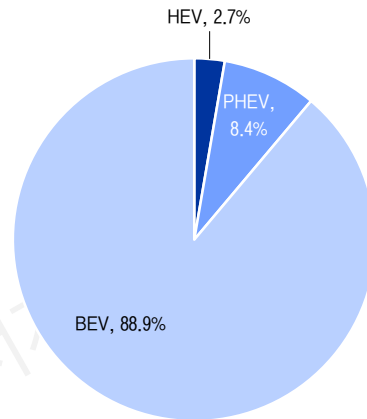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EV 타입별 판매대수 M/S('2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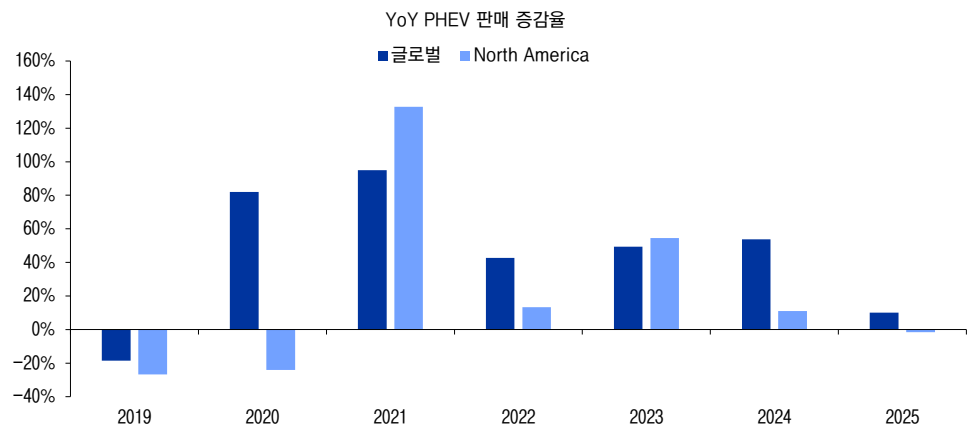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EV 타입별 배터리 탑재량 M/S('2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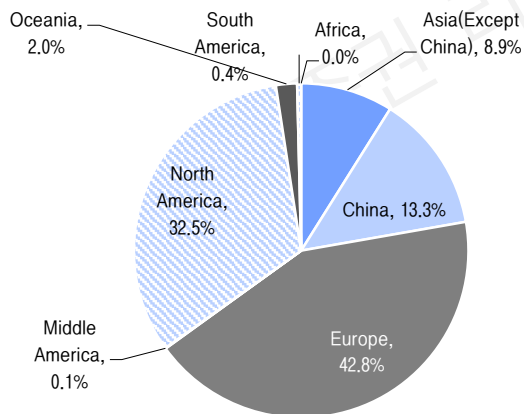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PHEV에서도 '21 년과 '23 년 제외하면 북미 판매 증감을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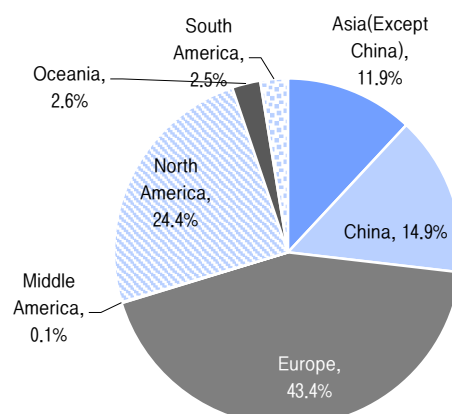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LGES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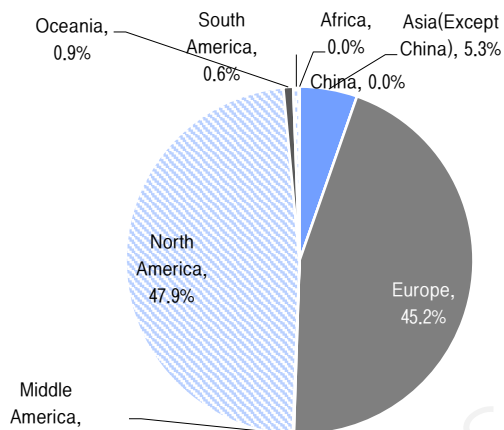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LGES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6 년 5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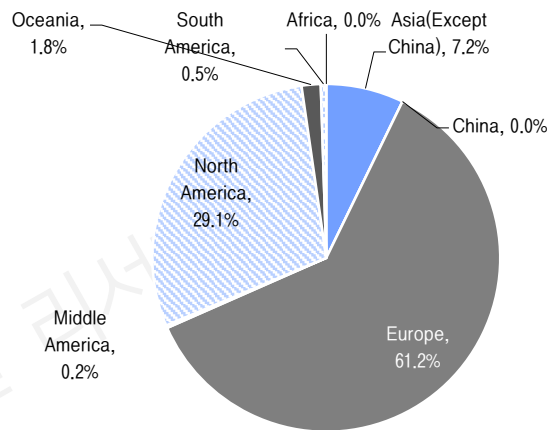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SDI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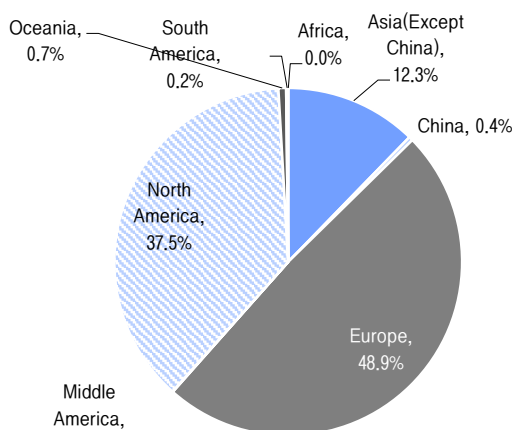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SDI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6 년 5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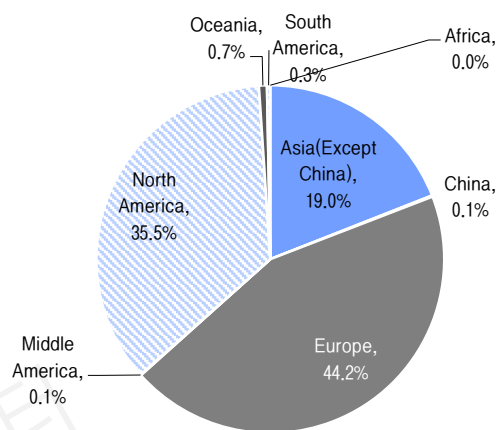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SK On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5 년)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SK On EV 향 배터리 지역별 비중('26 년 5 월)



자료: SNE Research,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경희).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0.3%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pm 15\%$ 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9.7%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5. 7. 1 ~ 2026. 6.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